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로 대단한 승리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내 생활이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띄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로 대단한 승리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내 생활이 조금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는 항상 말을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로 대단한 승리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내 생활이 조금은 더 잔잔해질 것입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서나 예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로 대단한 승리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내 생활이 조금은 더 운 좋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로 대단한 승리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내 생활이 조금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나는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로 대단한 승리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내 생활이 조금은 더 당당해질 것입니다.

나는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먼저 양보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로 대단한 승리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내 생활이 조금은 더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항상 겸손하고 근면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로 대단한 승리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내 생활이 조금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면 그렸지▶ **왔다감**
'아카시아 감'이 풋풋한 사랑의 추억을 그리워지게 한다면 '왔다감'은 때론 손으로 판박이를 붙이던 어린 날의 그리움에 젖어 들게 합니다.
'왔다감' 이후로 무엇이든 최고라는 뜻으로 "왔다"라는 말이 사용되었죠. 연변에서 "왔답니다"라고 사용하는 것도 이때 이후부터인가요?
아직도 무지개 너머에는 "왔다감"을 손에 쥐고 행복해하던 그 아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5권 37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9월 14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새벽기도 하는 사람과 살면 좋은 이유



1.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통제'도 잘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인생 전체도 통제 할 수 있는 법이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안심하고 인생을 맡겨도 좋습니다.

2. 새벽기도의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지를 아는 사람' 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그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잘 catch해서 그대를 만족시켜 줄 겁니다.

3.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신나간 듯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만을 열정적으로 사랑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4.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기도할 제목도 없습니다. 오직 꿈이 있는 사람만이 새벽이라도 깨어 기도합니다

5.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잠재력' 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가능성'입니다.

6.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고 신실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7.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낭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데이트의 낭만, 새벽 공기의 낭만, 새벽 소리의 낭만, 새벽 분위기의 낭만, 새벽만의 영감, 새벽만의 기대감.....
그 풍성한 새벽 향기를 맡을 줄 알고 그 새벽 향기를 머금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의 힘겨운 위기'마저도 '몽글한 기적의 기회'로 바꾸어서 그대에게 선물해 줄 겁니다.

(웬히 주눅 들게 하는 글이 아닐까 망설였습니다. 새벽기도를 꼭 교회서만 할 이유는 없지요. 밤의 냉기를 녹이는 거실 불 앞에서, 아직 아이들이 깨지 않은 고요함 속에서..... 그렇다고 이 글에 감동 받아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새벽기도회에 나오지는 마세요. 좀 쑥스러울 테니까요. 한 주 건너 뛴 다음주면 플라도.....)

엄마가 딸에게
하난다고
문을 광 달지 마라
문과 몸, 둘 다 망가진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하라
인격에 흠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거칠게 대한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85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7 (시편 65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 린 이 시 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 송 Hymn	91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박일영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열왕기하 5:1-14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믿음시리즈(10) "벗어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믿음"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72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을 더욱 굳세라' (1절: 교역자가족 2절: 다같이)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9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7	노은숙	임숙경	우리는..	최현철, 경덕현
14	박일영	정성호	교역자 가족	고성일, 권용일
21	이광희	최현철	김교섭, 정희자	김경구, 김교섭
28	이규임	한상미	김영길, 신경화	김반석, 김성국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1. 교우소식. <방문 출국>
*유병민 집사. 사업차 지난 주간 출국. 평안히 다녀오세요
*신경화 집사. 고국 떠나와 처음 가는 '9년만의 외출'(14일 출국.)
친정 어머니, 거제의 가을, 아직도 소녀적 마음인 친구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귀국> 김인숙 집사 가정. 새로운 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생산시작> 권용일, 이지영 집사. "행복한 식탁". 그동안 공장수리 후 물품생산 시작(쇠고기, 돼지고기, 소시지 등). 번창함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택시> 김홍구 성도. 열심으로 준비하시던 모습에 마음 든든해하며 기도 드립니다
2. 자원봉사자 주일
*봉사를 맡으신 교우께서는 봉사할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우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BBQ 친교를 나누겠습니다. 아울러 추석을 겸한 명절 분위기를 살려볼까요?
3.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일사> 15일(월) 오후 1시. 교회당에서
*나의 열심으로, 아니면 운이 좋아 이루어진 것 같지만 뒤에서 기도해주시는 분들의 기도가 나도 모르게 있었습니다. 여성교우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4. 남선교회 주관 Golf 친교모임
<일사> 20일(토) 12시. Aviation Golf Club(공항 Shell 주유소 건너편)
*Golf 후 Club House에서 골프장을 내려다보며 맛보다는 멋스러움이 있는 식사... 쾌적한 Van을 타고 저와 같이 가지 않으시렵니까? (교회출발 4:15pm).
5. 수요일특별찬양예배(예고). 살림중앙단의 특별 찬양으로 드립니다
<일사> 24일(수) 저녁 7:30
6. 영화클럽 정기영화상영(예고). <일사> 21일(다음주일) Tea Time
*정신지체자 아빠와 진주 같은 눈을 가진 딸의 사랑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잔잔한 감동으로 적셔준 행복한 영화 'I am Sam'기대하셔도 좋습니다.

<p>◀착한 시인▶ 추 석 -유 자 호-</p> <p>나이 순이 되어도 어린 시절 부끄러운 기억으로 잠 못 이루고 철들 때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버린 어머니, 아버지. 아들을 기다리며 서성이는 깊은 밤. 반백의 머리를 쓰다듬는 부드러운 달빛의 손길. 모든 것을 용서하는 넉넉한 얼굴. 아, 추석이구나.</p>	<p>추석이라 여기 저기 전화를 드렸습 니다. 외국에서 잊지 않고 주는 명 절 인사에 고마워하는 음성이었습니 다 그러나 정작 아버님을 향해 누를 때 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누르 기가 싫었습니다. 충기 있으시던 머리도 이제 어눌해 지신 당신, 자식 위해 기도 외에는 더 할게 없으셔서 기도만 하신다는 당신의 기도... 아직도 저는 당신의 그 기도를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p>
---	--